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423-431,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423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가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임경민[1], 김희영[2*], 박금자[3]
[1]동주대학교 간호학과, [2]고신대학교 간호학과, [3]고신대학교 간호대학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Kyoung-Min Lim[1], Heui-Yeoung Kim[2*], Park, Geum Ja[3]
[1]**Department of Nursing, Dong ju College**
[2]**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3]**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B광역시, U광역시 소재 5개 대학의 1학기 이상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남자간호대학생 180명이며 2016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은 3.95,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은 3.90점,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은 3.79점이었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학년(p=.001)과 간호학과 선택권유자(p=.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이미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은 중간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는 하위요인 중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며 54.6%, 전공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반만족, 인식만족이었으며 전공만족도를 추가했을 때 60.6%로 전체설명력은 60.6%였다. 따라서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학생들에게 간호사 이미지 인식 향상 교육과 전략이 필요하며 남자간호대학생이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긍정적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nursing image and nursing as a major, on the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Totally, 180 male nursing students having experience in clinical practicefrom B and U cities, were enrolled as subjects. Data were collected from 15thNovember to 15thDecember, 2016.Analysis by t-test, ANOVA &Scheff'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vealed a mean score of nursing image at3.95, major satisfaction score of 3.90,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core of 3.79. The degree of professional awareness amongst the participants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year of study and the person who had recommended nursing as a career option. Nursing professionalism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nursing image, and moderately correlated with satisfaction of nursing as a major subject. Results also indicated that 60.6% results indicatingnursing professionalism weremos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wo factors: the image of the nurse, followed by satisfaction of nursing as major. We conclude that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requires education and strategy to improve their nursing image, and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that focuses towards greater satisfaction for their selected major subject.

Keywords : Major satisfaction, Male nursing students, Nurse image,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Heui-Yeoung Kim(Kosin University)
Tel: +82-10-3871-0739 email: heui-wd@hanmail.net
Received July 19, 2017 Revised (1st September 7, 2017, 2nd October 12,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라는 직업은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도 간호직의 대부분이 여성 인력으로 구성되어 왔 었다[1]. 그러나 최근 간호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인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연해지면서 자신의 적성과 취업률을 우선시 하여 학과를 선택하는 추세이며, 또한 임상에서도 남자 간호사들의 수요 증가와 함께 남자들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남자간호사는 1962년 첫 남자 간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에는 2134명(10.96%)으로 올해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2]. 그러나 아직 남자 간호사의 수는 전체 간호사 수의 2%에 불과하며 다른 의학 분야 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풍토로 인해 아직도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또한 남자 간호사도 남자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이유로 남자 간호사는 특수 업무 담당, 의사업무보조 등,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모호성과 갈등을 경험한다[4]. 그러나 남자 간호사의 지속적인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간호인력의 확충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간호전문직의 직업적 위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5].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확립하기 위해서 간호학생 때부터 간호에 대한 전문직업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며, 인간의 지각과 해석을 좌우하여 간호세계를 보는 의식적 견해를 뜻하는 것으로[6],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으면, 간호 업무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으며, 바른 가치관과 전문성의 확립과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내재되어 간호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6].

한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병원이라는 직장 단위 안에서 간호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의사, 병원직원, 환자, 보호자가 그동안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느낌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7〕. 따라서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5]. 간호 대학생이 졸업 후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직업적응 그리고 더 나아가 남자 간호사의 위상 정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8].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다[9]. 간호학과는 여학생중심의 교육환경과 사회전반에 걸친 성 고정관념 및 간호현장에서 경험하는 차별적인 태도[10]로 인해 남자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 자체의 이미지 뿐 만 아니라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일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인식 때문에 학과 적응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11].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며[12], 전공만족도가 높을 때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에 큰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남자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이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관 관련 논문을 찾아보았을 때 간호전문직관에 대해서는 전문직 가치 도구 개발[6]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와의 영향[13]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전공만족과 성정체성 및 성 고정관념 사이의 관계[1],이미지와 직무인식[14],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8], 남자 간호 대학생의 진로유형 및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15],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16], 남자 간호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인식유형[17], 남자 간호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18] 등의 연구들이 있었으며,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자 간호 대학생이 아닌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의 이미지, 전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남자 간호 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제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B광역시와 U광역시 소재의 5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1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남자 간호 대학생 각각 40명씩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30일간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먼저 해당학교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부장, 학과장을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학생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85%, 효과크기 (f 2)는 중간크기인 .20 (medium)으로 선정하여 산출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표본의 크기는 18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료수집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1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대상자의 제 특성 4개 문항, 간호사 이미지 29개 문항, 전공만족도 18개 문항 및 간호전문직관 26개 문항으로 총 7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Yang[19]이 개발한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를 Lee 등 [20]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 9개 문항, 사회적 이미지 7개 문항, 전문적 이미지 7개 문항 및 개인적 이미지 6개 문항의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등 [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9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Ha[9]가 개발한 학과 만족도 측정 도구를 Lee[1]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5개 문항, 인식만족 7개 문항, 교과만족 3개 문항 및 관계만족 3개 문항의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5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6]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Kim[21]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 9개 문항, 사회적 인식 8개 문항, 간호의 전문성 4개 문항, 간호계의 역할 3개 문항, 간호의 독자성 2개 문항으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 중 학년은 4학년이 51.1%(92명), 3학년이 48.9%(88명)였으며, 종교는 없다가 55%(99명), 있다가 45%(81명)였다. 학과 생활 중 어려운 점은 학과 수업이 57.8%(104명), 여학우와의 관계가 21.1%(38명), 기타가 10.6%(19명)의 순이었으며, 간호학 선택은 스스로 선택이 69.4%(12명), 타인에 의해서가 30.6%(55명)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학년(t=-3.391, p=.001)과 간호학 선택권유자(t=2.35,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4학년인 경우(3.91±1.00)가 3학년인 경우(3.38±1.00)보다 또한 간호학 선택 권유를 자신이 한 경우(3.98±0.50)가 타인의 권유인 경우(3.79 ±0.48)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3.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이 평균평점이 3.95(±0.033)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평균평점이 전통적 이미지는 4.12점(±0.037), 전문적 이미지는 4.02점(±0.042), 개인적 이미지는 3.94점(±0.040), 사회적 이미지는 3.68점(±0.0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평균평점이 3.90(±0.047)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평균 3.70점(±0.051), 관계만족은 3.69점(±0.054), 교과만족은 3.68점(±0.0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평점은 3.79점(±0.034)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간호의 전문성이 4.10점(±0.040), 전문직 자아개념이 4.00점(±0.038), 간호계의 역할이 4.00점(±0.043), 사회적 인식이 3.83점

Table 1. Degree of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 or F	p	Scheffe
Grade	3rd	88(48.9%)	3.38±1.00	-3.391	.001	
	4th	92(51.1%)	3.91±1.00			
Religion	Yes	81(45%)	3.99±0.49	1.43	.155	
	No	99(55%)	3.89±0.46			
Difficulty in school life	Relationship with female students	38(21.1%)	3.84±0.48	1.01	.404	-
	Classes	104(57.8%)	3.94±0.45			
	Difficulty in practicing	10(5.6%)	4.17±0.57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9(5%)	3.89±0.50			
	Etc	19(10.6%)	3.97±0.56			
choice of Nursing	by myself	125(69.4%)	3.98±0.50	2.35	.020	
	by others	55(30.6%)	3.79±0.48			

Table 2. Degree of Image of nurses, Satisfaction of major, Nursing professionalism (N=180)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Image of nurses	29	114.58±13.15	46-90	3.95±0.033
Traditional image	9	36.02±4.32	23-45	4.12±0.037
Social image	7	26.07±3.70	17-35	3.68±0.039
Professional image	7	28.33±3.87	14-35	4.02±0.042
Individual image	6	24.16±3.53	16-30	3.94±0.040
Major satisfaction	18	70.57±9.04	46-90	3.90±0.047
General satisfaction	5	19.31±3.30	11-25	4.18±0.041
Perception satisfaction	7	29.12±3.72	17-35	3.70±0.051
Subject Satisfaction	3	11.08±20.08	5-15	3.69±0.054
Relationship satisfaction	3	11.06±2.18	5-15	3.69±0.054
Nursing professionalism	26	102.21±12.40	75-130	3.79±0.034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9	36.05±4.63	25-45	40.00±0.038
Social awareness	8	29.86±4.54	19-40	3.83±0.044
Professionalism of nursing	4	16.23±2.15	11-20	4.10±0.040
Roles of nursing service	3	11.92±1.95	7-15	4.00±0.043
Autonomy of nursing	2	7.6±1.19	7-10	3.60±0.008

(±0.044), 간호의 독자성이 3.60점(±0.00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0, p<.001).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 하위영역의 상관관계에서는 '역할'(r=.67, p<.001) '대인관계'(r=.67, p<.001), '자질'(r=.66, p<.001), '사회참여'(r=.65, p<.001)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간호전문직관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중간정도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7, p<.001).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별 상관관계를 보면, '일반만족'(r=.61, p<.001), '인식만족'(r=.60, p<.001)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과만족'(r=.45, p<.001)과, '관계만족'이(r=.45, p<.001)에서 중간정도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 정도에 차이가 있었던 학년, 간호학 선택자와 독립변수들 중 간호전문직관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간호사 이미지(하위영역: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이

Table 3. Correlation among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180)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r	*p*
Image of nurses	.70	< .001***
Traditional image	.66	< .001***
Social image	.67	< .001***
Professional image	.65	< .001***
Individual image	.67	< .001***
Major satisfaction	.57	< .001***
General satisfaction	.61	< .001***
Perception satisfaction	.60	< .001***
Curriculum satisfaction	.45	< .001***
Relationship satisfaction	.45	< .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Nursing professionalism with Predictor variables (N=180)

Variable	B	SE	β	t	*p*	Adj. R^2
Constant	15.009	5.280		2.842	<.001***	
Image of nurses	.464	.063	.492	7.416	<.001***	.546
Major Satisfaction	.482	.091	.351	5.290	<.001***	.606
Adj. R^2 =..606, F=138.592, *p*<.001***						

미지, 개인적 이미지)와 전공만족도(하위영역: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중 명목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창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잔차값(Durbin-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값은 0752~1.000에 있고, VIF 값은 1.000~2.000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752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38.592 p<.001),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2)는 .606로 전체 설명력이 60.6%이었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사 이미지 54.6% 로 전공만족도를 추가 하였을 때 60.6%였다.(Tabl 4).

4. 논의

본 연구는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평점이 3.95±0.03(척도범위: 1-5)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의 연구에서 3.40점으로 측정된 결과보다는 높았고,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등[23]의 연구에서 4.00점으로 측정된 결과와, 남자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15]의 연구에서는 3.79점으로 측정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Lee 등[20]의 연구에서는 2004년도에 시행된 것이고, Lim 등[23]의 연구는 2016년, Jeong 등[15]의 연구는 2015년도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사의 취업률이 높으므로 인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간호교육 인증제 등으로 인해 간호교육의 질이 높아졌으며, 학교의 브랜드와 상관없이 평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영역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m 등[22]의 연구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등[23]의 연구에서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m 등[22]의 연구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등[23]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남자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남자 간호 대학생의 경우는 여자 간호학생보다 전통적인 이미지를 보다 많이 직면하게 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자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전통적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 전문적이고 성별을 벗어난 전문직종의 직업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있는 간호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평점이 3.90±0.04(척도범위: 1-5)으로 약간 높은 편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 정도가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1]의 연구에서 3.7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3]의 연구에서 3.7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4]의 연구에서 3.54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는 남학생의 경우는 간호학과로 전공을 선택할 시에 숙고를 하고 또한 보다 많은 관련사항을 검토한 후에 선택하였

으므로 기대에 따른 만족도 더 큰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 하위영역에서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와 Lee[13]의 연구에서 인식만족, 일반만족, 관계만족, 교과만족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전공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인 일반만족이 높다는 것은 진학동기가 본인의 의지로 입학한 남자 간호 대학생에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Lee[1]의 연구는 2011년에, 본 연구는 2016년에 조사 되었다는 시점을 고려해 볼 때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여자만의 직업이 아니며 전문직종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다른 과와 비교해서 취직율이 높다는 이유로 간호 대학에 입학하는 남학생들이 스스로 간호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평점이 3.79±0.03(척도범위:1-5)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3]의 연구에서 3.6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 등[25]의 연구에서 3.67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Lee[13]와 Ko 등[25]의 연구의 경우 2011년에 행해진 것인데 비해 본 연구의 경우 2016년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2012년도부터 시작된 제2기 간호교육 인증제 등의 프로그램에서 핵심간호술의 강조 등으로 인해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절대적인 값이 중간정도로 나타난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임상실습의 어려움이나 취업에서 오는 남자 간호사로서의 한계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제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학년(t=-3.391, p=.001)과 간호학 선택권유자(t=2.35, p=.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4학년이 3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 간호학 선택 결정이 자신의 뜻인 경우가 타인의 뜻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3]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26]의 연구에서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일반적인 특성의 확대를 통한 재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실습이나 기타 전공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취업 후 진로에 대한 직업적 소명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학년별로 전문직관의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상관관계는 r=.70으로서 강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사 이미지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Jo & Kim[27]의 남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도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Ham[28] 등과 Lee[13], Lim & Jo[23]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과 일치 하였다.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므로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심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방안과 지도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정도의 상관관계는 r=.57로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m 등[22]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말하므로[9]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이 되는 간호전문직관[2]이 긍정적으로 형성 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의 교과과정 구성과 진행 등을 통해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남자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였으며, 간호사 이미지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전체 설명력은 60.6%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m 등[2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im 등[23]

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간호전문직관에 높은 영향력이 있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사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졸업 후 직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간호전문직에 대한 교과 과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간호계의 대내외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인식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남자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간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예비간호사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교과나 다양한 교과 외 활동에서 노력이 필요하며,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과에서의 전략적인 프로그램이 마련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지역의 5개 대학의 남자 간호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References

[1]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4.

[2]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Internet]: Entering the era of 2,000 men passing the nurses' nationality[cited 2017.Feb.16].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

[3] Y. R. Park,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4, pp. 449-458, 2009.

[4] J. O. Bun, H. J. Park, "Male, Nursing students, Delivery room, Practic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1, pp. 64-76, 2011.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1.17.1.64

[5] S. Y. Lee,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of turnover of male nurse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4.

[6] E. J. Yeun, Y. M. Kwo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7] I. 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vol. 32 no. 2, pp. 51-61, 1993.

[8] M. S. Song, Y. R. Park, H. Wee, "Male Nurses` Images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iversity", *Korea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38, pp. 37-67, 2015.

[9]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10] J. Evan,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7 no. 3 pp. 321-328, 2004.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96.x

[11] J. S. Lee, N. J. Kim, H. J. Doo, J. Y. An, Y. K. Lee,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2, pp. 159-169, 2005.

[12]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icy*, vol. 12, pp. 46-51, 2007. DOI: https://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13] S. 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011.

[14] M. S. Youn, "The study for Nurse Image and Job Recognition about Male Nurse of Male Students in Nursing", *Holistic Health Science*, vol. 4 no. 2, pp. 95-106, 2012.

[15] K. S. Jeong, H. O. Ju, "Career Choice of Male Nursing Students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Career Choic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2 no. 3, pp. 177-184, 2015. DOI: http://dx.doi.org/10.5953/JMJH.2015.22.3.177

[16] H. O. Jeon, E. Y. Yeom,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s, Academic Stress Cop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Male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4 no. 12, pp. 796-807,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2.796

[17] M. A. Kim, S. H. KO, E. A. Park, "Understanding the Gender Role Identity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23-233,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23

[18] J. H. Park, G. Y. Jo, "Predictors of subjectives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2, pp. 511-522,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2.511

[19] I. S.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4 no. 2, pp. 289-306, 1998.

[20] S. H. Lee, S. Y. Kim, J. A. Kim,"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2, pp. 219-231, 2004.

[21] M. H.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Graduate School Kyeonghee University, 2008.

[22] Y. H. Han, I. S. Shon, K. O. Park, K.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2, pp. 17-31. 2010.

[23]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56-566,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56

[24] M. S. Lee, Y. O. H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738-8744,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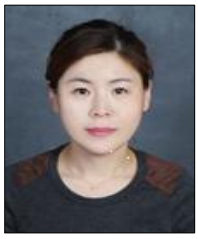
[25] Y. J. Ko, &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26]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14.

[27] J. A, Cho, J. S.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87-59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4.587

[28]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538-546,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36

임 경 민(Kyoung-Min Lim) **[정회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학과(의료경영 전공) 석사1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보건과학과(의료경영 전공)박사
- 2016년 3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 박사 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동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간호인사관리, 의료경영, 의료서비스 마케팅

김 희 영(Heui-Yeou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1990년 3월 ~ 현재 : 동아대학교 병원 근무(WOCN)

<관심분야>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상처 장루 실금 간호

박 금 자(Park, Geum Ja) **[정회원]**

- 1983년 2월 : 동아대학교 이과대학 생물학과 이학사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박사
- 1986년 5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학, 종양간호학, 간호통계학, 중년여성